

현장에는 노조의 개입을 산업에는 **노동의 기준**을

AI 도입부터 정년·최저임금·초기업교섭까지, 핵심 진전 네 가지



01 AI 도입

AI 도입부터 노조가 개입합니다

작업공정·인사 관리에 AI를 들일 때,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를 만들었습니다.

1 사전 통보

AI 도입 전
조합에 알립니다

2 공동 점검

조합이 요청하면
노사 합동 사전 점검

3 보호 대책 합의

고용, 교육훈련, 산업안전·개인정보
보호 대책 노사 합의

4 부당한 인사조치 방지

AI 활용 인사조치 이의제기시
타당성 입증 책임은 회사에

✓ 조합이 요청하면 AI가 수집·제공하는 정보, 회사의 AI 활용 업무 범위·권한도 제공

02 정년 연장

정년연장 방식·임금체계, 조합과 합의해야 합니다

✓ 법령 개정 시 단체교섭으로 정년연장 추진

✓ 의견청취·협의만으로 시행 불가, 조합과 합의 필수

법령 개정 시 즉각 교섭 가능한 근거 확보

03 금속산업 최저임금

2027년 적용

통상시급

10,830원

월 통상임금 2,447,580원

두 금액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적용

+ 410원

+3.93%

법정최저임금 보다 +130원

금속 사업장 비정규직·이주노동자 포함

04 초기업 교섭

산별노조의 힘을 사업장 담장 밖으로

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금속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채택

+ 합의 효력 확장 요구

중앙·지부집단교섭 합의를
산업·업종·지역의 기준으로 확장

✓ 참여사업장 지원

각종 노사 지원 정책에서
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우선 지원

🔗 정책 과정 노사 참여

정책 수립·집행·평가에
금속 노사가 참여할 협의체계 마련

실현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 구조도 정부에 촉구합니다

중앙교섭 성과, 현장의 힘으로 지키고 넓힙시다